

동금당(東金堂)

목조유마거사좌상(산스크리트어: 비말라키르티)

국보

유마거사는 대승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인 유마경의 중심 인물입니다. 유마경은 고후쿠지 절의 근본 경전으로 고후쿠지 절의 이름도 이 경전 속 한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. 유마경에 따르면 유마는 출가하지 않고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석가모니의 다른 제자들과 벌인 논쟁에서도 뛰어난 제자들을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. 마지막 상대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오간 논쟁은,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는 장면 중 하나이며 불교 미술에서 자주 보이는 모티프가 되었습니다. 이 유마거사상도 이러한 일화에 따라 본존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안치된 문수보살상과 쌍을 이루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.

상 내부에 기록된 명문에 따르면 이 상은 1196년에 불상제작자인 조케이가 53일에 걸쳐 조각하고, 그 후 화가인 고엔이 다시 50일에 걸쳐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.

이 상의 유마는 병마에 시달려 늙고 쇠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사자나 모란으로 부조 장식을 새겨 넣은 직사각형 모양의 대좌 위에 양 발등을 각각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. 뒤에는 나무 울타리 같은 칸막이가 서 있는데, 거기에 천을 늘어뜨린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무늬가 없는 옷 위에 장식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. 왼손은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고,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를 펴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. 이 상은 부처나 천계의 존재가 아닌, 출가하지 않은 재가의 수가따[선서(善逝): ‘잘 가신 분’이라는 뜻으로, ‘부처’를 달리 이르는 말]를 표현하기 위해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 초기에 중국에서

전해진 매우 사실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조각 양식을 적용한 극히 희귀한 작품입니다.